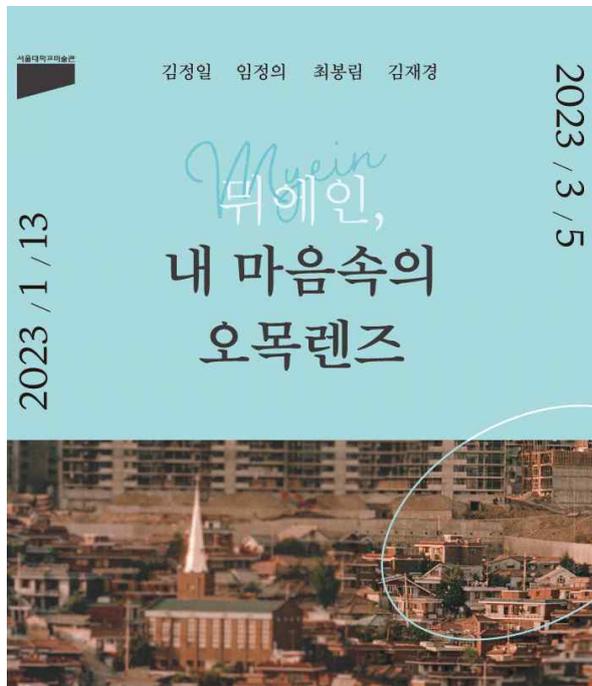


배포일자	2023. 1. 3.	발신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악구 관악로1)
제목	뫼에인(myein),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		
기자간담회	2023.1.12.(목) 10:30 서울대학교미술관		
이미지	웹하드(www.webhard.co.kr) ID: snumoa PW: moa123 [Guest 폴더] > [보도자료] > [뫼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		
홍보·전시담당	오진이 학예사 claudel@snu.ac.kr Tel. 02-880-9513 HP. 010-2074-8414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과거가 곧 미래
이제는 공간보다 장소를 만들어야



*뫼에인 Myein: ‘신성하게 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잃어버린 기억, 잃어버린 신화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심상용)은 《뫼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展을 2023년 1월 13일(금)부터 3월 5일(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서울 재개발 예정지 곳곳을 담은 사진 196점으로 구성되었다. 촬영 시기로는 1982년 촬영한 김정일의 기억 풍경 연작 53점이 가장 앞선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임정의의 사진 36점을 그의 방대한 아카이브에서 엄선하여 이 작업들을 전후한 그의 대표작 6점과 함께 선보인다. 최봉림의 1990년 봉천동 출사 작업 65점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김재경의 mute 연작 32점은 1999년 세기말의 서울을, 또 그 후속 작업인 mute2 4점은 2000년대 서울의 시공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개발지구 발표, 부동산 투기, 빈부의 격차 증대의 도시재개발을 거치며 **공동체적 이웃 개념**을 잃어왔다. 공간을 보는 시선의 저온화, 삶의 장소를 ‘누추한 환경’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로 잘못 계층화하고, 기억에서 삭제하는 인지적 자학이 《뫼에인, 내마음 속의 오목렌즈》전이 마주하는 진실의 한 자락이다. 이렇게 삶의 장소를 자원과 재개발보다 하위에 둠으로써 한국인은 **신적인 것, 곧 우리 삶의 뫼에인(myein)**, 곧 신성하게 하기에서 분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뫼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전은 이제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전망(展望)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근시안을 교정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 오목렌즈의 배율을 더 높게** 하자고 제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업광고 사진의 활황기 속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일명 달동네를 홀로 촬영한 이 네 명의 사진가들의 작업은 과거에 대한 관습적인 노스텔지어 대신 시각적 명쾌함을 통한 우리 사회의 이 큰 이슈에 대한 주체적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도시인구 비율이 곧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사회, 지금까지는 공간을 얻기 위해 장소를 쉽게 없애버렸다면 이제 **도시를 장소로** 만들 실천적 삶이 필요하다.

전시 기간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술일반, 다큐멘터리 사진, 사회학** 관련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시연계 세미나**도 열린다.

■ 전시개요

전시제목: 뫼에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

전시기간: 2023. 1. 13.(금) - 3. 5.(일)

전시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전관

전시작품: 사진 196점

참여작가: 김정일, 김재경, 임정의, 최봉림 (4명)

주최: 서울대학교미술관

■ 관람정보

관람료: 무료

관람일시: 2023.1.13(금) ~ 3.5(일) 10:00~18:00 / 개막식 2023.1.13.(금) 16:00

* 설 당일 및 매주 월요일 휴관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미술관

일반인 문의 전화: (02) 880-9504

■ 전시연계 세미나

일시: 2023.2.17.(금) 15:00-16:30

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발표자: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박상우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김홍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Website: www.snumoa.org

Instagram: www.instagram.com/snu.moa

Facebook: www.facebook.com/snu.moa

Videos(YouTube): www.youtube.com/@snumoa

■ 참여작가 약력 및 대표 작품 이미지

김정일 (KIM Jungil, b.1956-)

사진가 김정일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4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KBS미디어 출판부에 입사하여 출판사진 팀장, 문화사업부 교육팀장 등을 거쳐 2014년 정년퇴임 하였다. 2015년 11월 눈빛출판사에서 사진집 『기억의 풍경』을 내고, 한국포토그래퍼 갤러리에서 같은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으며, 현재 사진 아카데미 ‘안국동 밝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1982년 어느 날 신문 지면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0여 개의 개발지구가 발표됐다. 투기의 시작이며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발점이다. 이 신문 쪽지를 가지고 한 군데씩 지워가며 촬영을 다녔다. ‘사실성 기록성.’ 사진을 시작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던 소리다. 진실, 기록, 재현, 소외... 늘 내 머리에 있던 단어들이다.”_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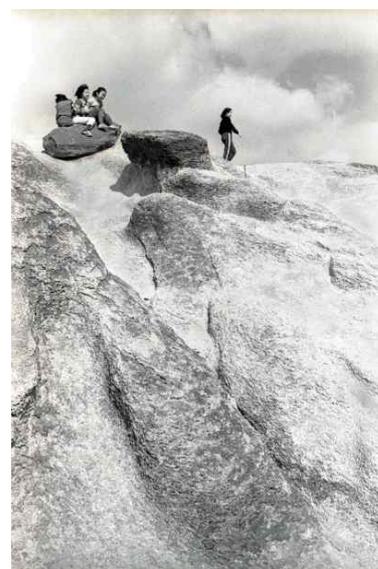
김정일, 기억 풍경-봉천동 1981.12~1982.2
archival pigment print, 25.4×38.3 cm



김정일, 기억 풍경-압구정, 1981.12~1982.2
archival pigment print, 25.4×38.3 cm



김정일, 기억 풍경-봉천동 1981.12~1982.2
archival pigment print, 38.3×25.4 cm



김정일, 기억 풍경-금호동 1981.12~1982.2
archival pigment print, 38.3×25.4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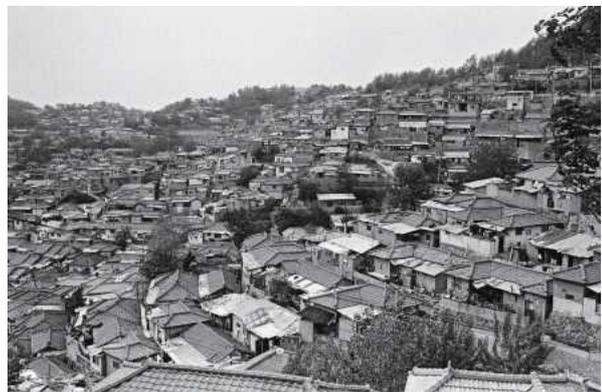
임정의 (LIM Chung Eui, b.1944-)

조부 임석제, 부 임인식으로 사진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자 임준영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사진을 하고 있다. 건축사진가로 국내외 건축도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있다. 1970년부터 신문, 방송 보도사진을 하다가 1975년 공간 사진부장을 거쳐 현재 청암아카이브와 청암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 초대 작가로 참가하였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사진가 인물아카이브에 생애사 구술 기록이 영구 소장되어 있다. 『임정의 포토그래피1』, 『르 코르뷔제를 보다』, 『한국의 공간』 등 다수의 출간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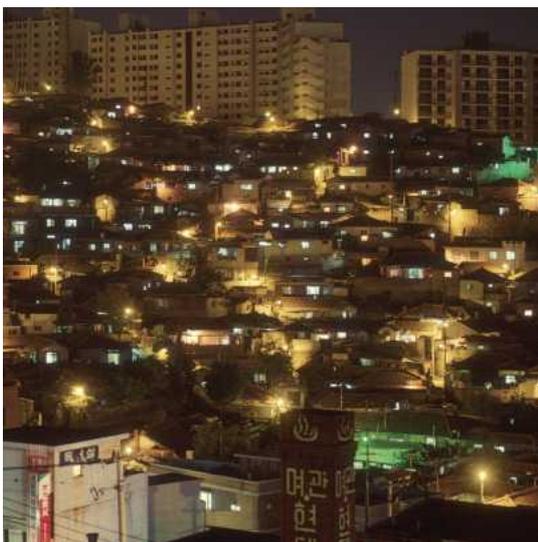
“1980년대부터 30여 년간 나는 건축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달동네를 사진으로 찍어 오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학생들의 시선이 참 궁금해졌다... 나는 자신의 삶보다 내 이웃의 삶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것을 기대했었다. 어떤 학생들은 마을의 입구에서 찍어왔고 어떤 학생들은 마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어왔다. 사진을 찍는 사람의 각도와 피사체의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참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은 어디에 살든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는다. 주거는 하나의 형태일 뿐 인간의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_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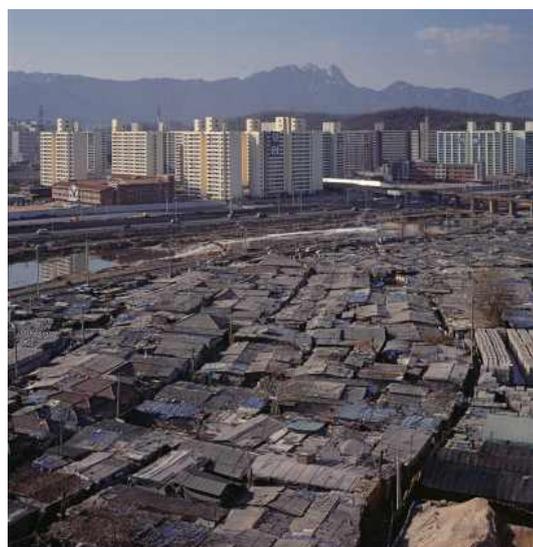
임정의, 신림7동, 1984
archival pigment print, 50×70 cm



임정의, 봉천5동, 1985
archival pigment print, 50×70 cm



임정의, 금호동 야경, 1993
archival pigment print, 90×90 cm



임정의, 상계동, 1990
archival pigment print, 90×9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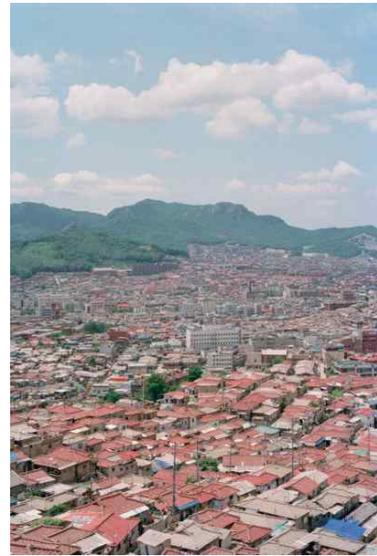
최봉림 (CHOI Bom, b.1959-)

한국 외국어대학 불어과 학사 및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석사 졸업 후 파리1대학 미술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뮤지엄한미 연구소 소장이다. 2006년 첫 개인전 이래 《랜드마크: 도시의 찬란한 꿈》(63스카리아트미술관, 2015) 등 다수의 개인전 및 기획전 참여와 《숨은 사진 찾기》(동덕아트갤러리, 2007) 등의 전시 기획 활동을 해왔다.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과 뮤지엄한미에 소장되어 있다. 저서 『서양 사진사 32장면』, 역서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로잘린드 크라우스 저) 등 여러 편을 출간했다.

“1989년 봄, 나는 사진가가 되기 위한 훈련의 무대로 동작구 상도동 종점에서 관악구 봉천동 끝으로 이어지는 달동네 능선을 택했다. ... 아마도 가장 절실한 이유는 좋은 사진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근한 일상에서도 사진의 소재를 찾고 그것을 실수 없이 포착해야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같다. 그래서 그곳을 2년 동안 쉬지 않고 기웃거렸다. ... 자아를 향하지 않는 의식, 바깥만을 살피는 시선, 노출과 초점에 실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자의식의 과잉, 병약한 감수성을 치유하는 듯했다. 달동네의 표정과 움직임 그리고 그곳의 하찮은 사건들이 카메라를 든 나의 모든 관심사였다.”-작가노트



최봉림, 서울 달동네 1990, 봉천동, c.1990
inkjet print, 36×24 cm, ed. 1/7



최봉림, 서울 달동네 1990, 봉천동, c.1990
inkjet print, 36×24 cm, ed. 1/7



최봉림, 서울 달동네 1990, 봉천동, c.1990
inkjet print, 24×36 cm, ed. 1/7



최봉림, 서울 달동네 1990, 봉천동, c.1990
inkjet print, 24×36 cm, ed. 1/7

김재경 (KIM Jae-Kyeong, b.1958-)

1994년 첫 개인전 《건축사진》 이래로 《리얼-리얼시티》(아르코미술관, 2019) 등 다수의 개인전 및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1998년 월간 「POAR」가 뽑은 '11인의 주목받은 건축인', 2003년 한미문화예술재단에서 주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건축잡지 격월간 『와이드AR』 사진총괄 부편집인을 맡고 있다. 저서로 사진집 『자연과 건축』, 『mute』, 『mute 2: 봉인된 시간』, 『건축사진의 비밀』(공저), 에세이집 『셋 클락 건축을 품다』 등이 있다.

“지금까지 휘둘린 우리의 주거, 도시환경처럼 그것이 외양에만 그치는 것은 판타지와 스펙타클의 사회를 가속화하는 일이다. 이런 사회의 공기감은 누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여 현실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이다. '진실은 바로 시민들이 표출한 일상적 환경'이며, 그 일상 사물에 대한 조르주 페렉의 집요한 묘사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익숙해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진술"은 우리가 외면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건축을 표상, 소비하는 이미지(건축사진)는 생물학적(도시적) 건축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_작가노트



김재경, mute-023-삼선동, 1999
gelatin-silver print, 38×25 cm, ed. 1/10



김재경, mute-027-옥수동, 1999
gelatin-silver print, 38×25 cm, ed. 1/10



김재경, 동승동_091103_1-1_18, 2009
archival pigment print, 83×228 cm, ed. 1/5